

WBC 개막 D-1

“대만 투수력 만만찮다”

김인식 감독 “공격력은 좌타 라인 조심해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아시아 예선전 한국팀의 첫 상대인 대만이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김인식 감독(사진)은 2일 대만 대표팀과 요미우리 자이언츠간 평가전과 관련, “대만 투수들이 생각보다 세다. 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 출신 투수들의 힘이 괜찮다”라고 평가했다고 한국 야구위원회(KBO) 관계자가 3일 전했다.

대만은 전날 요미우리와 평가전에서 경기 후반 집중타를 맞아 6-7로 아쉽게 패했다. 그러나 마이너리그 출신 투수들이 대부분 실점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수싸움’에서 졌을 뿐, 공 자체는 좋았다는 평가다. 김 감독은 또 대만의 공격력에 대해서는 “특히 좌타 라인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 경기에서 혼자서 홈런 1개와 2루타 2개 등 3타점의 공격력을 과시한 린이취엔(24)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예선전 통과의 필수관문인 대만전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대표팀 코치진이 한국팀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일본과 경기에서 선발 등판이 유력한 최수우 김광현(SK)의 두 가지 슬라이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하와이 전지훈련때의 김광현 투수. /연합뉴스

“한국은 역시 강하다”

일본대표팀 세이부 평가전 등 현미경 분석

“타선 밸런스 좋고 김광현 슬라이더 빼어나”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아시아 예선 개막을 이틀 앞두고 일본 야구 대표팀이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일본 언론은 3일 하라 다쓰노리 감독을 비롯한 일본대표팀 코칭스태프 전원이 전날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한국대표팀과 세이부 라이온스의 평가전을 현장에서 지켜봤고 한국 대표팀의 장단점을 자세히 분석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일본 대표팀 코치진은 한국 타선에 대해 “밸런스가 잘 잡힌 타선”이라고 경계심을 나타냈고 특히 일본과 경기에서 선발 등판이 유력한 최수우 김광현(SK)의 두 가지 슬라이더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발아구+힘 있는 중심 타선=WBC 조직위원회가 한국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한 중견수 이종욱(두산)이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이종욱은 세이부와의 경기에서 1회 좌중간 안타로 출루한 뒤 2루를 홈쳤고 김현수의 안타 때 홈을 밟아 대표팀이 자랑하는 ‘발아구’를 초반부터 유감없이 펼쳤다.

이종욱은 또 5회초 2사 2루 수비에서는 중전 안타를 잡아 총알 송구로 홈에 세도 하던 주자를 잡고 강한 어깨도 뽐냈다.

3회에는 이승엽(요미우리)을 대신해 새로운 해결사로 나서는 4번 김태균(한화)이 우중간 펜스를 넘기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3번 김현수는 적시타로 첫 타점을 올리는 등 중심 타선의 힘을 보여 줬다.

일본대표팀 아마다 히사시 투수코치는 “1,2번은 발이 빠르고 3-5번 중심 타선은 힘이 있다. 상대를 어렵히기에 좋도록 균형이 잘 잡힌 타선”이라고 평했다.

오가타 고이치 수비·주루 코치는 “훈련 때부터 이종욱은 생동감이 넘쳤다. 한국은 역시 강하다”고 덧붙였다.

◇김광현 공략법·속제와 해법을 동시에? =일본 대표팀 코치진은 김광현이 던진 두 가지 슬라이더에 주목했다. 김광현은 옆으로 휘는 것뿐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낙차 큰 슬라이더 두 종류를 던진다.

하라 감독은 “일본 대표 정도의 타자라면 두 가지 중 하나만 때린다는 생각으로 타석에서 목적구를 정해야 한다”며 한 종류만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스포츠’가 전했다.

이날 김광현이 허용한 6안타 중 3안타가 좌타자에게서 나온 점에서 일본대표팀은 해법 희망을 본 분위기였다. 일본은 작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김광현에게 두 번이나 당해 4위에 머물렀다.

최고 시속 146km가 찍힌 김광현의 직구는 ‘명품’으로 인정받았다. 김광현이 보유한 빠른 직구에 예리한 슬라이더는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었다.

명품수 출신으로 세이부 감독을 역임한 이토 쓰토무 일본 대표팀 수석코치는 “많은 참고가 됐다. 김광현의 팔 동작은 역동적”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광현이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훈련을 마치고 1일 도쿄에 도착해 시차적응도 안 된 시점에서 등판했기에 컨디션 회복하면 내용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의 ‘현미경 분석’이 WBC에서도 통찰력 주목된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3일 오후 도쿄돔에서 WBC 한국대표팀과 요미우리자이언츠의 연습경기를 앞두고 이승엽이 김인식 감독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현종·채종범 “V10 내가 이끈다”

KIA 타이거즈 감독·일본 전지훈련 마치고 귀국

‘야구 명가’ 재건을 위해 감독과 일본에서 구슬땀을 흘려온 KIA 타이거즈 전지훈련 선수단이 4일 오후 귀국한다.

지난 1월 17일 투·포수조가 판에서 1차 캠프를 시작한지 46일 만이다. KIA는 투·포수조에 이어 1월23일에는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에 야수조 캠프를 치르고 2009시즌을 준비해왔다.

전지훈련은 2월4일 투·포수조가 일본에 합류하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 기술훈련과 실전훈련을 통해 결음을 재촉한 KIA는 일본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경기를 비롯해 8번의 연습 경기를 통해 전력을 점검했다.

마운드에서는 3승을 챙긴 양현종이, 타석에서는 0.444의 타율을 기록한 채종범이 빛났다.

‘좌완 희망’ 양현종은 12이닝동안 13피안타 15탈삼진 8실점 2자책으로 1.5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등 눈부신 피칭으로 올 시즌 선발 진입에 청신호를 쏘았다.

지난 가을부터 절치부심 명예회복을 노려온 채종범도 27타수 12안타 4타점으로 0.444의 타율을 기록하며 치열한 외야 생존 싸움의 신호탄을 울렸다.

김상훈의 부상 속에 지난 시즌 안방 자리를 차지했던 차일목도 18타수 9안타 2홈런 5타점의 매서운 타격을 선보이며, 한치 양보

없는 안방 다툼을 예고했다.

전반적인 전력 상승세에 지난 시즌 KIA의 발목을 잡았던 부상의 공포에서 벗어난 것은 이번 전지훈련의 가장 큰 성과다.

김선빈, 정성철 등 신예선수들의 중도 귀국에 이어, 홍세완과 장성호가 전지훈련 막바지 허리 타포 손목 염좌로 선수단 보다 먼저 돌아왔지만 시즌 준비에는 별 무리가 없다.

부상병으로 신음하던 최희섭, 서재용, 김상훈 등 전력의 핵심 선수들이 견제하면서 선수단 분위기가 훈련의 질은 예년에 비해 좋아졌다.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체력훈련의 성과가 드러나면서 부상은 줄었고, 경쟁은 더 뜨거워졌다.

숨겨진 전지훈련 일정을 끝마친 KIA는 귀국 이후 달콤한 휴식 대신 강행군을 선택, 시즌 준비에 나선다. 5일 하루 여독을 풀 선수단은 6, 7일 대구를 찾아 심심 라이온즈와의 연습 경기를 갖는다. 11일과 12일에는 히어로즈를 광주로 불러들인다.

14일부터는 시범경기 일정이 분주하게 돌아간다.

1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지난해 우승팀 SK 와이번스와 시범경기 첫 대결을 갖는 KIA는 오는 29일 까지 14경기를 치르며, 2009 시즌을 이끌 베스트 멤버를 가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춘계고교야구 대진표					
3.4(수) 12:00	3.5(목) 10:00	3.6(금) 14:00			
동성고	진흥고	광주일고	동성고	진흥고	광주일고

■ 전국소년체전 2차예선 중학야구 대진표					
3.4(수) 10:00	3.5(목) 13:00	3.6(금) 10:00			
진흥중	동성중	진흥중	무등중	무등중	동성중
3.4(수) 15:00	3.5(목) 15:00	3.6(금) 12:00			
총장중	무등중	동성중	총장중	총장중	진흥중

광주지역 중·고야구 개막

4~6일 무등경기장야구장

광주지역 중·고야구 시즌이 시작됐다. 춘계고교야구와 전국소년체전 2차 예선 중학야구가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동안 광주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각각 열린다. 대통령배 고교야구 지역예선을 겸한 춘계고교대회는 광주일고·동성·진흥고가 출전,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서 세 팀 승률이 같을 경우 토

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리고 2위팀이 두 팀일 땐 공동 준우승으로 한다. 또한 5·6회까지 10점차, 7·8회까지 7점차일 경우 월드컵게임으로 경기가 종료된다.

소년체전 예선 중학야구는 진흥·동성·총장·무등중 4개교가 참가해 풀리그로 열린다. 1위 승률이 같은 팀이 나올 경우 다음날 재경기로 우승팀을 가린다. 중학야구는 5·6회까지 7점차일 경우 월드컵게임이 적용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광주시 야구협회, 운암한국병원과 지정병원 협약

광주광역시 야구협회(회장 윤병이)가 5일 운암한국병원(원장 박환민)과 공식 지정병원으로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운암한국병원은 야구협회 등록선수 및 임원가족의 총진료비를 20% 할

인해주는 등 광주시 야구협회 공식지정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병원에는 야구협회 심판관 12명을 기증하는 등 양측은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여울기자 wool@

대만, 세이부에 2-13 대패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아시아예선전 한국팀의 첫 상대인 대만이 평가전에서 일본 프로야구 세이부 라이온스에 완패했다.

대만은 3일 도쿄돔에서 열린 세이부와 평가전에서 홈런 2개를 포함해 장타 13안타를 허용하며 2-13으로 대패했다.

전날 요미우리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던 투수진이 이날은 부진했다.

대만 국내리그 소속 린위예핑은 세이부 구리야마 다쿠미에게 우중간 솔로홈런을 맞은 것을 포함해 3회 동안 5실점했고 6회 등판한 리아오위청도 컨트를 난조가 겹쳐 한 이닝에만 4점을 내줬다. 시카고 컵스 마이너리그 팀에서 뛰고 있는 천홍원도 9회에 오미치 노리요시에게 투런 홈런 1개를 허용하는 등 역시 3점을 내줬다. /연합뉴스

김연아 아이스쇼 세계 은반스타 총집합

4월 24~26일 고양서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가 꽃피는 4월에 세계 정상급 은반 스타들과 어울려 화려한 아이스쇼로 국내 피겨 팬들에게 싱그러움 봄 소식을 알린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3일 “김연아와 세계 정상급 실력의 피겨 선수들이 출연하는 ‘KCC 스윙퀸 페스타 온 아이스 2009’가 4월 24~26일 까지 3일간 고양시 킨텍스 특별링크에서 치러진다”라고 밝혔다.

에는 김연아를 필두로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 아라카와 시즈카(일본)와 2009 4대륙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우승자 패트릭 찬(캐나다), 두 차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에 빛나는 스테판 람베(스위스), 2008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싱글 우승자 제레미 에보트(미국), 지난해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여자싱글 우승에 빛나는 레이철 플랫(미국), 꽃미남 스케이터 조니 위어(미국) 등이 나선다. 또 페어 부문 세계랭킹 2위의 장단-장하오(중국) 조도 2년 연속 한국을 찾는다. /연합뉴스